

##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表現樣式에 關한 研究

- 패션雜誌를 中心으로 -

盧 潤 宣

東西大學校 디자인學部 패션디자인專攻 助教授

## A Study on Modes of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

- Focused on Fashion Magazine -

Roh, Youn-S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 Abstract

Fashion Illustration has become a key method in expressing Fashion, and is being applied in various fields of the modern world, where changes are so rapid that prescribing trends are meaningless. Fashion Illustration was stimulated through progress of wood block printing and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iques, and grew with fashion magazines. Fashion Illustration advanced along with the appearance of newspapers and magazines that were emerged due to historical demands such as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iques, spacial spread of human life, obliteration of traditional societies, diffusion of education systems, progress in postal systems, and appearance of commercial broadcast. Fashion Illustration showed growth and decline along with the influence of mass media such as magazines and photography, and the general publics demand.

In this study, the author reviews Le Nouvau Mercure Galant, the magazine that first dealt with Fashion Illustrations. The author analyses the magazine in six stages of formation, growth, revolution, golden-age, decline, and reconstruction, to develop a theoretical analysis of Fashion Illustration and to give direction of use of Fashion Illustr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Fashion Illustration(패션 일러스트레이션), Modes of Expression(표현양식), Fashion Magazine(패션 잡지)

### I. 서론

패션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대의 유행과 사고 방식을 크게 반영하는 것이며<sup>1)</sup> 특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역하면 유행을 그린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는 패션 메시지 전달이라는 목적성을 띤 시각 표현으로서, 복식의 단순한 도해에서부터 패션 이미지를 나타낸 고도의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복

식 전달을 위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에 따라 다른 표현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표현 성격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복식제작과 연결되는 설명도 기능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시보다는 복식 전반의 이미지를 작가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sup>3)</sup>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의상 제작을 위한 것에

서부터 패션 전문지의 패션 정보를 위한 것, 신문·잡지·백화점등의 광고, 미술품과 같이 풍부한 상업적 이미지와 예술적 작품성을 지닌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트렌드를 규정한다는 것이 무의미 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생활환경에서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표현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시초는 판화의 개발과 인쇄술의 발달로 시작되었고 패션잡지와 함께 성장하였다.<sup>4)</sup>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쇄술의 발달, 인간관계의 공간적 분포, 고대 공동사회의 해소, 교육의 보급, 우편제도의 발달, 영업적 보도전달 증개 출현 등의 역사적 요구로 인해 생겨난 근대 신문 및 잡지 출현<sup>5)</sup>에 힘입어 시작되었고, 잡지·사진 등 대중매체의 영향과 대중의 요구에 의해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잡지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20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성기, 발전기, 혁명기, 황금기, 쇠퇴기, 부흥기로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표현양식은 그 시대의 주요잡지에서 활발히 활동한 대표적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표현 기법, 이미지, 스타일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파악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미래에 전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이론적 배경의 고찰

### 1. 20세기 이전

#### 1) 17-18세기(생성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인쇄되는 최초의 책으로는 16C부터 독일에서 출판되기 시작한 의복책(Trachtenbucher)일 것이나<sup>6)</sup> 이는 패션을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당시의 의복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패션 아이디어의 본격적인 등장은 1672년 프랑스에서 <르 메르퀴르 갈랑(Le

Mercure Galant))이라는 잡지가 발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잡지는 루이14세(1638-1715)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대중의 여가를 위한 잡지였으며, 패션만을 위한 전문 기사란이 만들어졌다. 1678년 잡지가 <르 누보 메르퀴르 갈랑(Le Nouveau Mercure Galant))으로 재편되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까지 표시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처음으로 실린다.<sup>7)</sup> 르 누보 메르퀴르 갈랑은 패션에 관한 전문적인 기사를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다룬 최초의 잡지로 인정된다.

패션 잡지는 18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영국에서 1759년 <더 레이디스 매거진(The Ladies Magazine, 1759))이 발간되어 화제를 모았다.<sup>8)</sup> 1759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패션 플레이트는 색이 없었으나 수공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예술적 이점이 있었다고 평가된다.<sup>9)</sup>

프랑스의 것으로 최초의 패션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1768년 <쥬르날 뒤 구(Journal du Gout))이며,<sup>10)</sup> 이를 선두로 1830년까지 프랑스에서만 총 42개의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어 패션정보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립하였다. 이들 잡지에 게재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의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의상에 대해서 뿐 아니라 패셔너블한 집, 가구, 옷 입는 방법,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다.<sup>11)</sup> 이 시기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대부분 목판 혹은 동판 작품이나 그 외에 색다른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도 있다(도 1).

#### 2) 19세기 (발전기)

18세기와 19세기 초의 패션 잡지는 패션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대중들은 1828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고디스 레이디스 북(Godey,s Ladie's Book))에서부터 비로소 사실적인 패션정보를 접하게 된다.<sup>12)</sup> 그것은 '미국화된 패션을 다룬다'는 잡지의 취지와는 달리, 파리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복사해서 수록하였다.<sup>13)</sup> 서구에서는 패션잡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패션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만 394개의 패션잡지가 발전기 사이에 간행되었다. 그 중에는 단기간 안에 폐간된 것도 있지만 다수의 잡지는 장기간 출판되면서 대중에게 고



<도 1> Niklaus von, Heideloff(1797)



<도 2> Le Petit Courier des Dames(1837)

정적으로 패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패션잡지가 널리 보급되면서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고급스러운 패션화보와 패션연감은 전 시대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많은 수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하게 되었다.

패션 잡지의 내용을 장식한 이 시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초점은 개성 있는 표현보다는 선으로 의상 세부를 정확하게 묘사하여 유행하는 스타일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도 2). 정보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그림 옆에는 소매의 형태, 트리밍의 종류 등 의상 각 부분의 명칭과 세부사항을 글로 적어

사실적인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sup>14)</sup> 디테일의 사실적인 묘사는 작가 개인의 특색을 희석시키고 일률적인 그림으로 유도하므로 이시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 개개인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 일러스트레이션만으로는 구별이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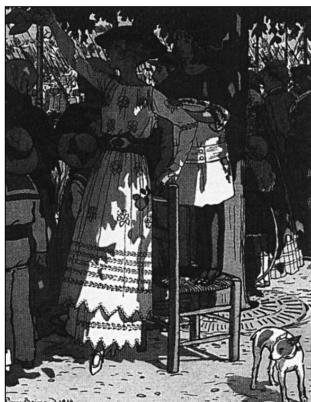
이 시기 초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실묘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으나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잡지와 패션 광고물에 사진이 도입되면서 사실묘사의 진부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점차 그 매력을 잃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sup>15)</sup>

## 2. 20세기 이후

### 1) 1910-1920년대(혁명기)

20세기 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혁명기적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예술 사조와 복식이 연관되었으며, 각종 예술사조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sup>16)</sup>

이 시기 시대 첨단적 감각의 패션 디자이너 폴 푸와레(Paul Poiret, 1879-1944)가 보다 참신하고 새로운 차원의 일러스트레이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수용하였다. 그는 1908년과 1911년도에 그의 작품을 일러스트레이터 폴 이리브(Paul Iribe, 1883-1935)와 조지 르



<도 3> Pierre Brissaud, La Gazette du Bon Ton (1914)



<도 4> Georges Lepape, La Gazette du Bon Ton (1912)



<도 5> Gorge Lepape, Vogue France(1926)



<도 6> Erikson, Vogue France(1925)



<도 7> Benito, Vogue France(1924)



<도 8> Jean Dupas, Fourres Max(1928/9)

빠빠(George Lepape, 1887-1971)에게 각각 의뢰하여 작품집을 발간케 함으로써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자기 이미지 표현의 매체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최초로 사용,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와의 유대 관계를 열어 놓았고 이후 많은 예술가들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1910년대는 장식적이며 낭만적인 표현양식으로 동양풍의 아르데코(Art Deco)라 일컬어지는 새 시대의 양식이 일어났으며, 1920년대는 큐비즘(Cubism)구성주의의 조형 운동이 산업 디자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화면이 곡선에서 직선의 간결한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계간지 <가제트 위 본톤(Gazette du Bon Ton, 1912-1925)>(도 3, 4)이 발간된 것은 1912년으로 이 잡지는 창간호에서 그 사명이 '취미의 다양한 계절을 반영하는 것에 있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시즌마다 푸와레 이하의 저명한 디자이너의 작품 경향을 조지 르빠빠(도 5), 이리브, 마르티(A.E. Marty), 에르테(Erte), 에릭슨(Erikson)(도 6), 베니트(Benito)(도 7) 등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정확한 덧생을 통해 14년 동안 게재하였다.<sup>17)</sup>

또한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입체파, 야수파, 다다이즘 등 다양한 예술사조가 패션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으며, 1920년대에 창간된 French Vogue지에는 플랑크(G. Plank), 드라이든(Dryden), 듀

피(Dupy), 등의 유명화가들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발표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기술의 차원에서 벗어나 예술적 차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도 8).<sup>18)</sup>

개성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많은 패션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패션 잡지는 디자이너의 작품 스케치와 그에 관한 기사를 신기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어떤 디자이너가 유행을 주도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유능한 디자이너는 능력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를 채용하여 그의 스케치로 패션잡지를 통한 자신의 선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19)</sup>

패션디자이너와 잡지 편집자들은 그들의 의상이 매혹적이고 색다르게 보이기를 원했으므로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사물의 재현에만 그치는 사진 대신 무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존재하는 창의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잡지의 판매량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고 당시의 예술양식, 유행 그리고 고급 포스터를 결합한 여러 종류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광범위하게 시도하였다.

## 2) 1930-1940년대 (황금기)

1930~1940년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종이 본격적인 전문직종으로 등장하였으며, 수많은 유명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이 등장한 시기였다. 이시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주로 Haper's Bazaar, French



<도 9> Cassandre, Happers Bazaar(1939)



<도 10> Erte, English Happers Bazaar(1933)



<도 11> Carl Erikson, American vogue(1941)

Vogue, American Vogue 등에서 각종 패션상품 광고용으로 게재되었다.<sup>20)</sup>

1930년대에 접어들자 패션은 직선적인 실루엣 보다 부드럽고 자유로이 흐르는 듯한 여성적인 실루엣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실루엣의 탄생과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는 그래픽 이미지에서 회화적 이미지로 그 양상을 두게 된다.<sup>21)</sup>

또한 보그, 하퍼스 바자 등의 일류 패션 잡지는 판매 대상을 상류층으로부터 일반 층으로 바꾸어 패션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일반여성의 패션지식의 향상과 세련된 기호에 크게 기여했으며, 주말 옷차림이나 스포츠웨어의 보급도 패션 잡지의 계몽활동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sup>22)</sup>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황금기라고 불린 이 시기에 많은 순수회화 작가들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 영입되었다. 당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스타일에는 후기 인상주의와 낭만적 표현주의 초현실주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도 9, 10). 1920년대에 이어 이 시기까지 활동을 전개해 왔던 대표적 작가인 에릭(Eric, Carl Erickson 1891-1958)(도 11), 윌라메즈(Willaumez)등은 전 시대의 아수파적 스타일에서 벗어나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발표하였다.

한편 마르셀 그뤼오(R. Gruau)(도 12), 베르테(Marcel Vertes)(도 13)등은 후기인상주의 작가 틀르

즈 로트렉(Toulouse Lautrec)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코텔라치(Coltellacci), 드 취리코(De Chirico), 베니토 등은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S. Dali)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의 작품을 전개하였다.

### 3) 1950-1970년대(쇠퇴기)

이 시기부터 재능 있는 사진작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1940년대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성 있는 새로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사진의 발달에 밀려 패션잡지에서 점점 외면 받게 되었다.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쇠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영화—사진술과 더불어 대중문화가 발달하였고, 바우하우스(Bauhaus) 운동으로 인해 예술의 실용성이 강조되었으므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대사조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에릭과 부셰(Bouche)가 각각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사망하자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술성과 창조성에서 커다란 후퇴를 보였다.<sup>23)</sup> 이와 더불어 우수한 패션 잡지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그전에 비해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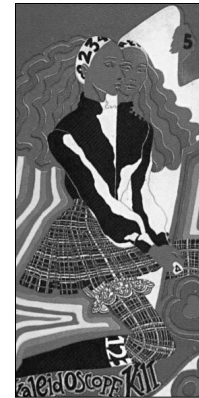
이러한 쇠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때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아직 부세의 후광을 받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약간이나마 살아 있는 모습을



<도 12> Rene Gruau, Album de la Mode du Rigaro(1946)



<도 13> Vertes, English Harpers Bazaar(1937)



<도 14> Antonio Lopez, New York Times Magazine(1967)

보였지만, 1970년대는 거장도 없었고 사진이라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대응물이 대단한 힘을 얻어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패션 잡지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위치는 그야말로 하나의 장신구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sup>24)</sup>

영국에서 일어난 오브제를 사용한 대중 미술인 팝 아트(Pop Art)의 영향이 컸었던 시대로서 금속, 유리, 종이, 비닐 의상이 대두되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한 선에서 로맨틱하고 섬세한 선으로 표현되어졌으며 지금까지의 7-8등신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닌 11등신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파리의 오프 꾸뛰르의 영향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에 있어 미술운동은 약화되고 패션은 대중음악, 영화, 사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 베나르(J. Berard)와 케오(Keogh)는 초현실주의가 가미된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을, 그뤼오는 동양화풍이 가미된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은 구사하였으며, 부셰는 에릭의 후기 인상주의 및 낭만적 표현주의의 화풍을 이어 받은 스타일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는 안토니오 로페즈(Antonio Lopez)<도 14>가 팝 아트의 영향을 받은 획기적 스타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그는 콜라주(Collage) 기법을 사용하는 표현기법과 스타일로 전향하였다.

#### 4) 1980년-현재(부흥기)

패션잡지에서 사진에 밀려 미미한 위치에 놓여 있던

일러스트레이션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의 증대와 일러스트레이션만이 가지는 특징이 재조명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sup>25)</sup> 이와 같은 추세는 사람들이 사진이 가진 훌륭함과 화면의 선명함에 실증났다는 것이다.<sup>26)</sup> 즉, 사진작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모델, 인화실, 배경 설치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인화하는 것 등이 비경제적, 비효율적이라는 자각에서 나타난 현상이다.<sup>27)</sup>

이시기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Haper's Bazaar, Italia Vogue, French Vogue, American Vogue 등에서 각종 패션상품 광고용, 기사의 삽화로 게재되었다.

특히 American Vogue 에서는 의류, 악세사리, 화장품등의 광고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양하게 실어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인상적인 기억을 남기었다.

1980년대는 사진의 렌즈를 통한 사물표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을 반영시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컴퓨터 그래픽, 콜라주, 에어브러쉬 등 다양한 표현양식이 선보였다.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 로버트 웨그(Robert Wagt)<도 15>, 나자(Nadja)등의 작가들이 활동하였다.

90년대 이후 예술 전 분야에 복잡하고 다양한 미술 개념과 방법이 공존하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도 핸드 드로잉(Hand Drawing)에만 그치지 않고, 에어브러쉬 기법, 컴퓨터 그래픽, 포토 몽타주, 판화, 입체



<도 15> Robert Wagt, Uomo Vogue Italia(1989)



<도 16> Thierry Perez, Vogue Italia(1992)



<도 17> Joe Eula, Bazaar Italia(1995)



<도 18> Hippolyte Romain, Vogue Italia(1995)



<도 19> Bourjois 광고, Elle Korea(2001)



<도 20> O'2nd 광고, Vogue Korea(1999)

기법 등 다양한 표현양식과 기법이 선보인다. 줄리(Joli), 매츠 구스타브슨(Mats Gustavson), 띠에리 페레즈(Thierry Perez)<도 16>, 조우 올라(Joe Eula)<도 17>, 히포리트 로메인(Hippolyte Romain)<도 18>, 졸탄(Zoltan)등의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현대 국내의 패션 업계는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기업으로 탈바꿈함과 아울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이후 잡지에 나타난 광고나 패션 정보를 목적으로 사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제작자의 창작성을 가미시켜 선의 사용이나 포즈 등에 있어서 개성 있는 표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체가 나타나지 않

거나 신체의 일부만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표현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10~12등신의 날씬한 인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머스럽고 기형적인 인체 및 얼굴묘사는 잡지기사와 광고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 19>는 국내 잡지 Elle의 화장품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젊은 층을 고객으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눈길을 끈다.

<도 20>은 국내 의류브랜드인 'O'2nd'의 광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윤한희의 봄(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라는 카피와 함께 계절과 트렌드에 어울리는 작품으로 선보였다.

### 3. 패션 잡지의 특성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

패션 잡지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패션 잡지의 시초인 프랑스의 <르

메르퀴르 갈랑(Le Mercure Galant)>잡지부터 현대의 패션 잡지에 이르기까지 주요잡지의 특성과 그 시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대표적 작가를 중심으로 표현 기법, 이미지, 스타일의 표현양식을 분석하였다. <표 1>

<표 1> 패션 잡지의 특성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

년대	시기	잡지의 특성/역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	주요잡지	대표적 작가
17C	생성기	패션에 관한 전문적인 기사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실린 최초의 잡지 등장	동판이나 목판기법 색이 없었으나 수공으로 그려졌다는 예술적 이점/의상이	Le Nouveau Mercure Galant	
18C		패션잡지 본격적으로 발전/패션정보전달 창구로서의 역할	사실적으로 묘사/의상 외 소품, 악세사리 묘사	The Ladies Magazine, Journal du Gout	
19C	발전기	패션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함/사실적인 패션 정보/	개성표현보다 의상 세부를 정확하게 묘사하여 유행하는 스타일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 디테일의 사실적인 묘사	Godey's Ladie's Book	
1910-1920	혁명기	개성있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많은 패션 잡지들-디자이너의 작품스케치와 그에 관한 기사를 신기 시작 사진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존재하는 창의적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잡지의 판매량 결정	작가의 상상력과 개성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은 시기/장식적이며 낭만적인 표현양식으로 동양풍의 아르데코 양식 큐비즘 구성주의 조형운동으로 간결한 이미지	Gazette du Bon Ton	Gorge Lepape, Iribe, Marty, Erte, Erikson, Benito
1930-1940	황금기	패션잡지의 판매대상을 일반층으로 한 패션의 대중화-패션지식 향상과 계몽 활동/패션상품광고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다수제작	순수화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부분 영입 낭만적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후기인상주의 영향		Willaumez, Gruau, Benito,
1950-1970	쇠퇴기	감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보다는 사실적이고 정확한 사진을 선호/예술성과 창조성에서 커다란 후퇴	젊음과 개성 강조, 만화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등장 대담하고 극적인 표현 /다양한 칼라, 패턴, 기법 시도	Vogue, ELLE Happer's Bazaar	Berard, Keogh, Bouche, Antonio Lopez
1980-현재	부흥기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의 증대와 일러스트레이션만의 특징이 재조명되면서 회복세	평면적이고 그래픽적인 형태, 컴퓨터그래픽의 성장으로 다양한 기법/다양화		Robert Wagt, Nadza, Joe Eula, Perez



### III. 결론

본 연구는 패션 잡지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20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성기, 발전기, 혁명기, 황금기, 쇠퇴기, 부흥기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표현양식은 그 시대의 주요잡지에서 활발히 활동한 대표적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패션에 관한 전문적인 기사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실린 최초의 잡지 <르 누보 메르퀴르 갈랑 (Le Nouveau Mercure Galant)>가 1678년에 등장하였으며 이 시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양식은 동판이나 목판기법을 사용하였고 색이 없었으나 수공으로 그려졌다는 예술적 이점이 있었다. 또한 의상뿐만 아니라 소품, 악세사리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둘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패션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던 상류층을 대상으로 잡지가 발간되었으며 사실적인 패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성표현보다 의상 세부를 정확하게 묘사하여 유행하는 스타일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셋째, 20세기 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혁명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개성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많은 패션 잡지들이 발간되었고 디자이너의 작품스케치와 그에 관한 기사를 신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진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존재하는 창의적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잡지의 판매량을 결정하였으며, 작가의 상상력과 개성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은 시기였다. 장식적이며 낭만적인 표현양식으로 동양풍의 아르데코 양식, 큐비즘 구성주의 조형운동으로 간결한 이미지가 대표적 표현양식이었다.

넷째, 1930-1940년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황금기로서 패션잡지의 판매대상을 일반 층으로 한 패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패션지식 향상과 계몽활동, 패션상품광고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생겼으며 순수화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부분 영입되었다. 이 시기의 패션은 직선적인 실루엣 보다 부드럽고 자

유로이 흐르는 듯한 여성적인 실루엣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실루엣의 탄생과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는 그래픽적 이미지에서 회화적 이미지로 그 양상을 두게 된다.

다섯째, 1950-1970년대에는 감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보다는 사실적이고 정확한 사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예술성과 창조성에서 커다란 후퇴를 보였다.

여섯째, 198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의 증대와 일러스트레이션만의 특징이 재조명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평면적이고 그래픽적인 형태, 컴퓨터그래픽의 성장으로 다양한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듯 패션 정보 제공이라는 전문적 영역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예술적 조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받으면서 민감하게 변화했고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사진이 사물을 정확하게 복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인 정보를 묘사하는 기능에 작가 해석의 기능까지 겸비했다는 장점이 대중에게 호소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사진은 찍힌 대상이 실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실물뿐만 아니라 상상에 의한 왜곡, 변형을 자유자재로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생활환경에서 예술과 산업의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실물이 없어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야 즉, 앞서가는 유행경향을 표현해야 하는 트렌드 북 등에서 많이 활용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Barnes, Colin,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Macdonald & Co Ltd., London, 1988, p. 6.
- 2) Sloave, E. Illustrating Fashion, Harper &

- Row, Publishers Inc., New York, 1977, p. 3.
- 3) 박미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경춘사, 1987, p. 3.
  - 4) 이희승,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5.
  - 5) 한국언론 연구원 편, 세계의 잡지, 언론 연구원 총서, 1988, p. 6.
  - 6) Ginsburg, Madeleine, An Introduction to Fashion Illustration, Pitman, London, 1980, p. 3.
  - 7) Ibid., p. 24.
  - 8) 홍성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천과 그 조형성, 여민, 1996, p. 13.
  - 9) 윤지선, 3D 애니메이션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7.
  - 10) 박미래, Op. cit., 서문
  - 11) 우주형, 예술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p.18.
  - 12) 홍성현, Op. cit., p.14.
  - 13)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1988, p. 7.
  - 14) Jane Aselford, The Art of Dress,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60, p. 212.
  - 15) 홍경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부조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5.
  - 16) 이주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테크닉, 학문사, 1999, p. 13.
  - 17) 허준, 파리모드200년, 유림문화사, 1988, p. 109.
  - 18) 이주현, Op. cit., p. 13.
  - 19) 이옥순, 한국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3, p. 10.
  - 20) 이주현, Op. cit., p.14
  - 21) Tate, Sharon and Mona Shafer Dewards, The Complete Book of Fashion, Ha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82, p. 231.
  - 22) 허준, Op. cit., p. 171.
  - 23) Danielson, Donna R., The Changing Ideal Figure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1, 1989, p. 27.
  - 24) 이승욱,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23.
  - 25) 앤드류 장,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디자인하우스, 1993, p. 108.
  - 26) Colin Barnes, Op. cit., p. 26.
  - 27) E. Sloave, Op. cit., p. 9.
- 
- (2004년 8월 5일 접수, 2004년 9월 13일 채택)